

# SUNBO FAMILY

SUNBO Ind Co., Ltd.

TEL 051. 261. 3454 www.sunboind.co.kr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17-2

vol.71

2009. 12. 05

since 1986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 달려라 선보!

### 제 11회 부산마라톤대회 참여

건강증진, 친목도모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제 11회 부산마라톤 대회가 열렸던 지난달 15일, 출발을 기다리는 시민들 속에 초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건강 증진을 꾀하기 위해 마라톤에 도전한 약 30명의 우리 회사 가족들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참여한 사원들 전원이 10Km 코스 완주에 성공해 건강을 뽐냈다.

이번 마라톤에 참여한 오세진 사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힘들진 않았지만, 추워서 다들 고생했습니다."며 "마라톤을 계기로 체력도 기르고, 타 부서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어 좋았다"고 말하며 "이번에 정호경 상무님이 1등을 하셔서 다들 기뻐했어요. 이번을 기회로 사내

에서는 '마라톤 동호회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마라톤 경기가 끝난 후 빼놓을 수 없는 뒷풀이는 선보의 자랑, 사원들은 경기 후 간단한 식사와 막걸리로 완주에 성공한 서로를 격려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결혼한 새신랑 김구영 계장은 부인과 함께 10Km코스에 참가해 완주했다. 그는 "설계4팀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주 참여하는 편입니다. 부장님이 행사에

관심이 많으셔서 부부동반이나 커플동반 모임이나 행사를 자주 가지곤 합니다"라고 말하며 "부인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는데 끝까지 뛰어줘서 고맙웠다"고 전했다. 또 김구영 계장은 "운동은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하지만, 마라톤은 추천해주고 싶다"며 "자신과의 싸움에 도전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을숙도대교 개통기념을 겸해 치러진 이번 대회는 다대포를 출발해 을숙도대교 - 르노삼성자동차 - 명지IC - 하구연 - 다대포해수욕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됐다.



### 최상식 부사장 산업평화상 수상



지난 11월 27일 우리 회사 최상식 부사장이 제 17회 산업평화상 기업인 부문을 수상하였다. 이번 수상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사간의 의견대립을 중재 창사 이래 23년 동안 단 한번도 노사분규 및 노사대립이 없는 회사를 만들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으로 생산성을 증대하였으며, 매주 수요일을 안전교육의 날로 정해 직원들 스스로가 강사가 되어 안전교육 실시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도입하여 근로여건 개선 및 원가절감에 기여한 것과, 선보 ERP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적은 관리 비용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된 점 그리고 지난 12월 보건복지가족부로 부터 중소기업으로 유일하게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정받는 등 회사의 복지 수준을 대기업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의 업적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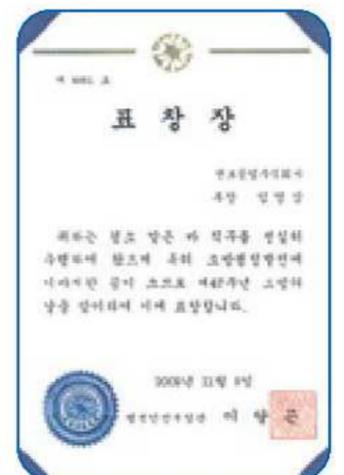
이 자리를 빌어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선보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해 본다.



### 행정안전부장 표창장 수상

우리 회사 임영삼 부장은 다대 1공장의 공장 책임자로서 자치 소방안전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특히 매주 수요일 실시되는 사내 안전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화재예방에 노력하여 공장 설립 이후 1건의 화재 사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한 공이 지대하여 금번 제 47주년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임영삼 부장은 소감을 통해 "평소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했을 뿐인데 이런 표창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



방 및 안전 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회사 소식

# 사업계획 2010 CLEAN UP SUNBO! 우리회사 내년도 전사 사업계획 발표

## 해양 및 육상모듈 전문 초우량 상장기업, 매출 2010억원 목표



호시우보(虎視牛步) 이 뜻은 "호랑이 눈으로 주시하며 걸음은 소처럼 꾸준히 신중하게 걷는다" 는 뜻의 한자성어다. 경제난국 속에 2010년을 준비하는 선보기족

의 마음 자세를 위한 한자성어다. '호시우보'의 마음가짐으로 우리회사가 내년도 전사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우리회사는 2007년 계획한 SB2012[R3]이라는 고유의 중장기플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매년 경영환경에 맞게 수정, 개선해왔다. 우리회사는 지난 10월 회사 경영환경을 검토하고 경제, 조선 산업 등의 전망을 분석해 SB2012 계획이 내년 사업에 적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미 조사를 마쳤고, 지난 11월 부서별 전사 계획을 전한 상태이며 이달 18일 최종 2010년 사업계획을 발표 할 예정이다. 이재민 대리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BSC 경영관리틀을 이용하여 개인 핵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및 부

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실시한다. 조직의 목표와 개개인의 목표를 일치시켜 서로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액션 플랜을 위해서"라며 "관리 쪽 뿐만 아니라 생산반도 실제 품질과 생산 현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 전했다. 우리 회사의 2010년 경영슬로건은 'CLEAN UP SUNBO'로 정해졌다. 매출 2010억 원을 목표로 Cooperation(협력/단결력), Learning(배움/연구개발/개선), Economy(원가관리/절감), All safety(안전제일), Net profit(수익성) 등 여섯 가지 핵심 액션을 통해 성장 동력의 수익창출, 기존사업 원가우위의 내실경영 실현의 해로 만들기 위해 달려가겠다는 의미다.

회사 소식

### 사내 전직원 대상 보안교육 실시



최근 자동차나 조선업계에서 보안에 소홀해 중국이나 여타 경쟁사로 관련 자료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우리 회사도 보안에 대한 생각을 다지고 보안규정 및 개념 확립의 필요성을 느껴 전직원 보안교육을 실시했다. 지난달 13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공장 단위로 치러진 이번 보안교육 동안 사내 전직원을 대상으로 보안각서를 받고 의식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윤강재 차장은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사내에서 제공된 내용은 사적으로 절대 유출할 수 없다"며 "기본 보안에 대한 개념과 의식을 강화시켜 기

술경쟁력 유지에 힘써야 할 것"이라 말했다. **[ 보안 문서의 정의 ]**  
1. 직원의 인사, 급여와 관련된 자료 및 이에 준하는 자료  
2. 도면 및 이에 준하는 자료  
3. 영업 수주단가 관련 자료 및 이에 준하는 자료  
4. 기술자료 및 이에 준하는 자료  
5. 기타 회사가 지정한 업무와 관련된 자료



회사 소식

### 예뻐진 선보, 벽화 구경하세요



우리 회사 벽이 예뻐졌다. 우리 회사가 메세나 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한 자연 예술인협회에서 그에 감사의 뜻으로 그려준 벽화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지하실입구와 2공장 입구 쪽 울타리에 이미 그려진 벽화 외에도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강재 차장은 "우리 회사가 그동안 학교나 복지단체 등을 통해 장학금 지급이나, 불우이웃

돕기 같은 사회원 활동을 해왔지만, 예술인에 대한 지원의 기회는 없었다. 이번에 메세나 사업을 알고 자연예술인협회에 지원하게 됐는데 이를 계기로 환원의 방향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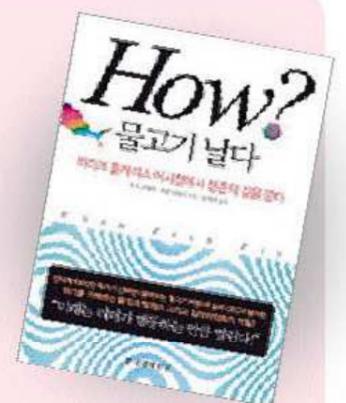
최홍렬 상무의

### 이 한권의 책 How? 물고기 날다

전세계 1,000만 독자가 선택한 [펼떡이는 물고기처럼]의 실제 CEO가 밝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임파워먼트 이야기!

전세계 내로라하는 CEO들이 벤치마킹한 시애틀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이크 플레이스 어시장 Pike Place Fish Market'의 성공 노하우를 다룬 책이다. 보잘 것 없던 34평의 작은 생선 가게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비밀을 파이크 플레이스 어시장의 CEO '존 요코하야'와 파이크 플레이스 어시장의 핵심 컨설턴트 '조셉 미첼리'가 상세하게 공개했다.

미국 시애틀의 어시장 모퉁이에 보잘 것 없는 생선 가게로 시작한 파이크 플레이스 어시장이 오늘날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어시장으로 발돋움한 원동력은 바로 '비전'에서 유래된다. 파이크 플레이스 어시장은 [펼떡이는 물고기처럼]의 주요 배경이 되었던 회사이기도 하다.



동호회 소식

등산동호회

# 우리 회사, 부산 청소년 장애인 “일본 다이산” 합동 원정 도우미 나서...

우리 회사 등산동호회 회원들이 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약산으로 유명한 일본의 한 산에 도전장을 낸 부산해성학교의 장애인 학생을 도와 험난한 산행을 무사히 마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이번에 정복한 산은 일본 돗토리현에 위치한 해발 1,709미터의 다이산으로 바다와 맞닿아 있어 일본의 3대 명산 가운데 하나로 불릴 정도로 아름답지만 정상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는 칼날 능선으로 불릴 정도로 가팔라, 정상인들이 등반하기에도 결코 쉽지 않다.

또한, 정상 부근에는 한여름에도 눈

이 쌓여있고 초겨울 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는 정말 말 그대로 약산인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 두 마디의 힘으로 결국 정상을 정복한 해성학교 학생들과 이들을 도우기 위해 기술동반 등 특수훈련을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 회사 등산동호회 회원들의 힘 앞에 가파른 능선도, 미끄러운 눈길도 극복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이들 앞에 장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최동배 부장이 추천하는

협력업체 탐방

## 태영산업, 단품 철의장 전문업체

아름다운 맥도강이 흐르는 곳에 위치한 태영산업은 97년 5월 설립된 직원수 12명의 단품 철의장 전문 업체다.



선보와 거래한 지 3년, 선보에 대해 묻자 최익석 대표는 “선보는 특별한 기업인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체육활동이나, 동호회 활동, 아침에 제공하는 김밥 등을 보면 직원들의 애사심이 왜 높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장님이 직접 체험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직원들도 같이 참여 시키는 즉, 가족적분위기를 이끄려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성금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이 활발한 것도 본받아야 할 점인 것 같았고요.”

인터뷰를 위해 현장에서 막 올라온 최익석 대표는 여느 업체 대표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현장업무를 직접 하시려는 질문에 멧쩍은 대답이 이어진다. “현장에서 살 부대끼며 함께 일합니다. 같이 밤도 새고 밥도 먹으며 정도 들고 그렇게 지냅니다” 사장님과 함께 일하면 사람들이 불편해지지 않는 질문에 최익석 대표가 한가지 에피소드를 전했다. “현장에서 특별히 직책을 밝히지 않아서 새

로 온 직원이 제가 사장인 줄 일주일 후에야 알았어요. 그 전까지 행남~하며 따르더니 사실을 알고 놀라더라고요. 여직원 같은 경우도 부득불 제가 면접에 참가하지 못해서 저를 보고 외판원인 줄 알았다고 했고요. 하지만 직원과 벽을 허물고 함께 어울리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위기가 좋으니 우리 회사 직원은 거의 대부분이 8~9년 장기근무자입니다. 장기근무자가 늘수록 품질도 좋아지고, 회사도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익석 대표가 강조하는 것은 말에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그는 “계획적 생산과 납기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근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고, 또 달라질 수 있지만 성실성과 책임감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하겠다는 말만 앞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직원들에게 말에 책임을 지라고 강조합니다.”며 “하면 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선보공업에 바라는 점을 전하자 이 젊은 대표는 타 업체와는 사뭇 다른 제안을 한다.

“해외에서 온 제품을 보면 원자재보다 비싼 제품이 많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선보공업 같은 큰 기업에서 공모전 등을 진행한다면 수입품의 국내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은 작은 업체에서도 개발에 힘쓸 수 있고, 선보도 더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품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보다 일을 사랑하고, 직원을 아끼는 이 30대 젊은 사장의 패기는 왜 태영산업이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들었다. 무궁한 꿈을 차근차근 실현해나가는 태영산업의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

생생 현장의 소리



박관호 주임

##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내겠습니다.

지난 2006년에 입사해 햇수로 4년 차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구평공장의 박관호 주임을 만났다. 자재 입출고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박관호 주임은 선보 입사 전 선박기관사로 6년 정도 일해 선박의 기본 흐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선보와 인연을 맺게 됐다.

다른 사람보다 늦은 나이에 입사한 터라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었다는 박관호 주임은 "다들 서로 피해주지 않고, 친근하게 대해 주어 물 흐르듯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다"며 "선보는 인간적이고 친근한 기업입니다. 우리 공장은 3명이 자재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족적이고 다들 형제처럼 믿고 따르는 관계라 일하기 더욱 수월하고 솔선수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일하면서 에피소드를 묻자 그는 "입사하고 얼마 안돼서 일인데, 정반에 납품하다가 물 때가 안 맞아서 제품이 다 물에 잠겼어요. 그 바람에 다들 함께 날 밤을 샌 적이 있는데, 힘들었지만 힘을 모아 작업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모든 일에 메모를 하고, 노트 정리를 하는 꼼꼼한 성격의 박관호 주임은 아쉬운 점으로 피드백 부족을 꼽았다. 그는 "밸브 납품 시 설계 실수로 불량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피드백이 안되고 같은 실수가 반복될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피드백을 통해 실수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는 바람을 전했다.

"조선경기가 어렵지만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다 잘될 것이라 믿고 저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입니다. 또 가정이 건강하고 화목하다면 바랄 바가 없겠지요. 이 자리를 빌어 항상 고생하는 집사람과 딸아이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회사일 때문에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빨리 집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선한 눈빛과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공은 얼굴을 가진 박관호 주임에게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리는 제법 잘 어울리는 문장일 것이란 생각이 드는 정직한 인터뷰였다.

선보 칭찬 릴레이

제 43호



김명운 사원

칭찬 릴레이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 "팀원 간의 조화가 최고를 만듭니다."

이번호 칭찬릴레이 인터뷰를 위해 찾아간 2공장 배관팀에 웃음꽃이 폈다. 김명운 사원은 부끄러워하며 모습을 드러냈고, 다들 본인 일처럼 기뻐해 주었다. 분위기 하나만으로 왜 칭찬릴레이 주자가 이곳에서 나타났는지 알 수 있었던 이번 인터뷰의 주인공은 배관팀 김명운 사원이다.

**Q** 이 번호 선보가족 칭찬릴레이 주자로 뽑히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머리동절합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도 다들 열심히 해주시는데 막내가 받아서 부끄럽네요.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Q**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근무하시지요?

선보에 온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배관조립일을 하고 있는데 성격이 활발한 편이라 항상 적극적으로 일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선보에 와서 서머서머할 때도 허정윤 소장님 외 형님들이 힘을 실어줘 가족같은 분위기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할 때 서로 배려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어떤 선보인으로 남고 싶나요?

회사가 잘 되려면 다같이 열심히 해야겠죠. 조선경기가 좋지 않는데 이럴 때일수록 분발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업무 역시 협력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혼자만 열심히 하기보다는 팀원들과 조화를 이루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다음 칭찬릴레이 주자를 추천한다면?

외국 친구를 추천해도 괜찮죠? 저는 베트남에서 온 비엔을 추천합니다. 몸집은 작지만 털털하고 맡은 일에 성실합니다. 또 언어는 다르지만 같이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칭찬릴레이 주자로 적합하다 생각해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 축하합니다!

<b>본사 생일</b>	
품질경영	박용갑(12/20)
총무안전	윤강재(12/22)
자재조달	최동배(12/17), 황지석(12/24)
설계팀	임기섭(12/7), 박이록(12/10)
설계3팀	문종현(12/9)
고장지원	정차균(12/11)
기술연구소	최순찬(12/8)
<b>1공장</b>	명철환(12/15), 신승훈(12/18), 강현욱(12/27), 김대관(12/26), 조속호(12/15), 한정환(12/28)
<b>2공장</b>	황종열(12/21), 최광철(12/12), 전광우(12/7)
<b>3공장</b>	채규만(12/15), 이주일(12/23)

<b>본사 입사기념일</b>	
기술영업	문해기(12/3)
<b>1공장</b>	김오석(12/16)
<b>2공장</b>	장상권(12/28)

<b>구평공장 생일</b>	
품질보증	이태경(12/4)
설계6팀	나소영(12/19)
<b>대한ENG</b>	권학인(12/10), 박정민(12/28), 김병기(12/1), 서동휘(12/6), 이재용(12/3)
<b>보성산업</b>	장정현(12/13), 방종만(12/30), 노안석(12/3), 한종완(12/11), 구성민(12/5)
<b>서경물류</b>	정영호(12/24), 김광주(12/2), 조남석(12/15)

<b>영도공장 생일</b>	
품질보증	박상계(12/25)
생산관리	성창훈(12/10)

<b>목포공장 생일</b>	
선보생산부	김홍영사원(12/30)
지디테크	김성구사원(12/15)
지디산업	윤성환사원(12/4)

<b>목포공장 입사기념일</b>	
선보생산부	박상부(12/8)

틀린 그림 찾기

5곳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찾아보세요. 누가 누가 잘 찾나!

